

안동(安東) 땅에서 삼형제(三兄弟)가 제주도 들어와 할로영산(漢拏靈山)에 올라가니, 흘 일도 엇고

『자, 밭(田)이나 시민¹⁾ 농사(農事)나 지을걸.』

차침 차침²⁾ 내려오는 것이 선을리(善屹里) 이데기머들³⁾ 올라서

『큰성님(伯兄—)은 어딜로 가쿠가?』

『난 과납(納邑里)⁴⁾으로 가마.』

『셋성님(仲兄—)은 어딜로 가쿠가?』

날랑 가시오름(伽時里)⁵⁾으로 가마.』

『족은 아신⁶⁾ 어딜 갈티?⁷⁾』

『저는 이디 있겠수다.』

베남⁸⁾를 식성제(三兄弟)가 이논공론(議論公論)허여, 은지남목 매앗인목 평앗인목,⁹⁾ 비는 너신너신 오는 날에 큰 암석(岩石) 안에 앓았더니, 귀(耳)는 작박¹⁰⁾이요, 몸은 머들¹¹⁾인 부군¹²⁾이 나오니, 큰성님이 상이(上衣)입성¹³⁾을 벗어내명

『저의 옷데레 들렀습네까?』

눈도 아니 거듭튼다.

셋성님이 약도리¹⁴⁾를 내여 노명

『일로나¹⁵⁾ 들것습네까?』

눈도 아니 거듭튼다.

족은 아시는 귀약통 남날개를 벗으나 좁아서 당초(當初) 들어갈 수가 없더라. 상이(上衣) 입성을 벗어내여

『제에게 테운 조상(祖上)이로고나. 이레 들서.¹⁶⁾』

상이(上衣) 입성 안테레 살살 들어오니, 들를 적에는 식성제(三兄弟)가 어기야차 들렸주마는 업 어진둥 말아진둥 한다.

선을곳(善屹藪) 베남⁸⁾를 돛박낭 알에¹⁷⁾ 와

1) 있으면.

2) 차침차침.

3) 조천면 선흘리(朝天面善屹里)의 지명.

4) 애월면 납읍리(涯月面納邑里).

5) 표선면 가시리(表善面伽時里).

6) 작은 아우는.

7) 갈 터이나.

8) 선흘리(善屹里)의 지명.

9) 선흘리의 지명.

10) 주걱.

11) 돌무더기.

12) 부군(府君). 뱀을 일컫는 말.

13) 의복.

14) 약돌기와 같음.

15) 여기로나.

16) 여기로 드십시오.

17) 동백나무 아래.

『어들로 좌정(坐定)호오리까?』

웃밧(上典)으로 좌정하여 가매우판(駕馬位版) 모사가지고 살아가는디, 데데(代代) 베슬이 나아간다.

背南旨坐 正祖上 通訓大夫

配 淑夫人 玄氏 子

嘉善大夫府君

配 貞節夫人 金氏 子

嘉善大夫府君

配 貞夫人 羅州金氏 子

參奉 參判府君

配 貞夫人 韓氏 子

濟州鎭官兼 明月萬戶府君

配 淑夫人 夫氏 子 將仕郎

제주판관(濟州判官)이 나니까, 성내읍중(城內邑中) 도성 삼문(都城三門)¹⁸⁾ 들어가서, 골채장시¹⁹⁾ 올리장시²⁰⁾ 고씨대선성(高氏大先生)²¹⁾을 청하여다가 굿을 치는디 안판관(安判官)이

『어찌하여 나는 서울상경(上京) 들어가 야픈 베슬²²⁾ 허여졌는고? 제주판관(濟州判官)이 뉘 판관인고? 목스(牧使)나 벌젠²³⁾ 허엿는디.』

그러니 조상(祖上)은 신발룬²⁴⁾ 조상(祖上)인디 애들롭더라.²⁵⁾

『에,²⁶⁾ 나 굿 잘 허여주고, 나 신가슴²⁷⁾ 풀려준 심방(神房) 안체포²⁸⁾에 똥라가져.²⁹⁾』

그 조상(祖上)이 심방(神房) 안체포에 드니, 신소미(神小巫)가 저도 안체포가 무거워서 못지고, 제우 제우³⁰⁾ 그으니믄를³¹⁾ 간³²⁾ 풀언 보난 청(靑) 만주에미³³⁾가 있더라.

『불써 안집(安宅) 조상(祖上)이 오라시난³⁴⁾ 우리도 잘 뉘 것이다.』

고씨선성(高氏先生)이 억만상신충³⁵⁾을 거느려 천변기도대양청³⁶⁾을 했더니마는 고동지(高同知) 고청주(高僉知) 벨장(別將) 베슬을 올라잡데다.

- 朝天面 北村里 男巫 朴仁珠 口誦, 漢文位牌는 朴仁珠氏 記錄物에 따름.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851-853.

18) 제주 시내를 이름.

19) 삼태기 장수.

20) 오리(鴨) 장수.

21) 고씨심방(高氏神房 · 巫)

22) 얇은 벼슬.

23) 벌려고.

24) 모심을 받아 그 집안을 도와주는.

25) 애달더라.

26) 뜻에 맞지 않을 때 역정으로 내는 소리.

27) 가슴. 「신-」은 접두사.

28) 상안체와 같음.

29) 따라가고자.

30) 겨우겨우.

31) 제주시 동문 밖의 고개.

32) 가서.

33) 작은 뱀.

34) 왔으니까.

35) 심방(神房)의 맨 윗 계위(階位).

36) 큰굿을 일컫는 말.